Ⅲ.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

1. 보험산업 진단과 미래비전

가. 저성장·저금리 장기화

■ 간담회 참석자 모두는 저성장·저금리 장기화가 보험산업의 수익성 악화 뿐 아니라 IFRS 등 회계제도 변화와 최저보증리스크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로 인해 보험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인식

■ 학계에서는 저금리 장기화에 대한 특별한 대응방안이 없으며, 이차역마진 확대와 더불어 IFRS Phase Ⅱ가 도입되면 책임준비금, 지급여력비율에 영향을 미쳐 생·손보 모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

- 또한 저금리 위험은 신용카드 사태 때부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해 왔는데, 이제 와서야 심각성을 인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일침

-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보험산업의 혁신을 강조

■ 보험업계와 유관기관에서는 저금리로 인한 이차역마진을 위험률차와 사업비차익으로 보완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, 이에 대해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

- 저금리 상황을 예견하지 못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지금은 이러한 비난보다 저금리 상황에 대한 해결이 중요함을 강조
  - 또한 신용카드 사태의 저금리는 사태 해결을 위한 유동성 공급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으나 최근의 저금리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같지 않다는 점을 지적
- 비차익과 사차익으로 이차손을 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차익과 사차익에 대한 압력이 심해질 경우 보험산업이 우려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언론과 시민단체가 이해해 줄 것을 희망
  - 비차익에 의존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경우 저금리 장기화 충격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등장
- 한편, 저성장 지속에 대해 보험회사들이 해외진출을 통해 수익성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, Moral Risk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반이 적절하게 확립된 국가에 대한 진출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
  - 또한 일본의 사례를 볼 때 해외진출이 정착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

■ 정책·감독당국에서는 저금리의 영향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문제점 인식 및 공유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, 내년 정책목표는 금융시장 안정화와 금융산업의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힘.

- 저성장·저금리·고령화가 한꺼번에 닥치고 있어 생명보험회사 중 대형사와 손해보험회사 중 장기보험 비중이 높은 회사들에 대한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
  - 금리가 2% 수준으로 하락하고 신계약 감소 추세가 지속된다면 상당수 회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이 크게 위축될 것임.
- 기존에 판매된 상품과 관련한 저금리 위험은 업계가, 향후 판매될 상품과 관련한 저금리 위험은 정책·감독당국과 업계가 협력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
- 2013년에는 재무건전성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저금리에 대응할 것이며, 변액보험 최저보증리스크 및 장수리스크 헤징 방안 부재에 대한 대응과 IFRS Phase II 등 제도 변화에 대비가 중요함을 강조

나. 소비자보호

■ 소비자보호·소비자만족은 보험산업 지속성장의 필요조건이며 소비자신뢰 하락은 생존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참석자 모두가 인식을 공유

■ 정책·감독당국의 경우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이 신자유주의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, 소비자보호는 장기적으로 소비자신뢰 회복을 통해 보험산업 성장과 양립할 수 있다는 입장임.

-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감독방향에 대해서는 업계가 원칙을 지킬 수 있고 감독당국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
-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외연 확대,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보다는 소비자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필요

■ 학계와 언론계에서는 보험회사의 소비자신뢰 제고 노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, 소비자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 가입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지 못한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제언

- 소비자들은 보험상품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험상품을 구입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여전히 갖고 있는데, 이는 보험에 대한 설명과 교육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임.
- 보험산업은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립서비스만 하고 있으며, 서민금융에 대한 협조도 소극적이기 때문에 보험산업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
- 소비자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차익 위주의 수익구조 및 수수료체계, 그리고 판매조직에 대한 개선도 필요함을 강조하였음.

■ 업계와 유관기관에서는 소비자신뢰 하락이 보험산업의 특성과 상품의 복잡성으로 인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소비자신뢰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

- 공급자 측면에서의 정보비대칭성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 문제는 보험료 전가를 통해 소비자에게 손실로 전가되므로, 소비자보호는 보험사기 문제와 함께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
- 보험산업이 고령화 시대에 이에 적합한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신뢰 제고가 선행되어야 함.
- 소비자보호를 위해 보험업계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기고 있으나 산업의 특성상 속도가 느린 것뿐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
- 보험 본연의 장점과 기능보다는 금융투자상품의 장점과 기능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보험업계가 경쟁을 한 점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부메랑이 되고 있다는 점도 인정

다. 보험산업의 비전과 역할

■ 보험산업의 미래비전에 대한 토론에서는 보험산업의 성장 과정에 대한 소회, 향후 성장 가능성 및 성장동력 그리고 보험 산업의 역할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음.

■ 학계와 언론계에서는 보험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인구구조 고령화와 관련된 보험산업의 청사진이 필요하고, 그 동안의 관행과 문화도 타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

- 고령화 시대의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보험업계와 보험연구원이 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,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할 것임.
  - 보험산업이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음.
- 보험산업의 "끼리끼리" 문화를 혁신하는 것이 지속성장을 위해서 필요함.
  - 보험업계가 정책·감독기관, 언론계·학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포획(Capture)하여 보험산업의 문제점을 숨겨왔기 때문에 위기에 직면하였다고 평가하면서, 이러한 문화를 혁신해야 한다고 제언
  - 타 금융업권 전문가가 보험산업에 들어오면 보험이 망한다는 구태의연한 인식을 혁신해야 하고, 보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 간 이종교배가 필요
- 금융투자상품 중심의 성장을 지양하고 금융산업에 보험산업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

■ 업계는 국내 보험시장이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노후대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성장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평가하며,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상품의 개발이 중요함을 강조

- 개인금융자산 비중 측면에서 보면 국내 가계의 보험자산 비중이 24% 수준인데 향후 주요국 수준인 30%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
  - 금융산업에서 보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 10%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20%까지 성장하였음.

- 또한 소득 증가에 따라 소득 수준별로 소비자들의 니즈가 변화해왔는데, 수요자 중심의 상품개발이 성장 동력이라고 평가

● 고령화로 인해 연금수요가 사적연금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,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

■ 유관기관의 경우 보험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여 보험이 보험답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과 사회안전망 구축은 보험의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

● 보험산업은 그 동안 금융산업의 일부로만 활동해 왔으나 보험산업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해야 하며, 이를 위해서는 보험산업에 대한 정의와 사회적 공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.

- 특히 사회안전망은 보험산업의 영역이며, 보험산업이야 말로 국민들이 노후에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됨.

● 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보험산업이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하며, 이를 위한 생·손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

●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을 수 있으나 가격 경쟁보다는 서비스 경쟁으로 경쟁 패러다임이 전환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언

■ 감독당국에서는 향후 확대될 복지수요를 보험산업의 성장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

- 노령화에 따른 소득보전, 건강 위험에 대한 대비 등 고령화 진전과 관련한 수요는 커질 것이며 건강보험, 간병, 정액보험 등 복지관련 금융상품 수요가 확대될 것임.

- 고령화에 대비한 상품개발에 정책·감독당국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음.

2. 보험연구원에 대한 평가 및 제언

가. 개원 2년간 보험연구원의 변화

■ 보험연구원은 개원(2010년 11월 26일) 이후 2년간 보험연구원의 비전 달성을 위한 인사·연구 시스템을 구축

- 보험연구원의 비전은 '모두가 귀를 기울이는 금융연구기관'이며, 구체적인 목표는 '보험·금융산업의 지속 성장과 국민경제성장에 대한 기여'임.

- 이러한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보험연구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연구결과를 효과적으로 외부에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
  - 보험연구원 개원은 보험연구원 스스로가 운명을 결정하고 연구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불과하며,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
  - 영향력 있는 연구 결과를 생산하기 위해 재임용제 도입 및 성과급 확대를 통해 연구책임자들을 항상 긴장하도록 유도하였으며, 내·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세미나를 정례화 하였고 공개하였음.
  - 이와 함께 연구 결과와 관련한 외부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외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대외 행사를 월 4.7회 개최

- 금융연구원, 자본시장 연구원을 능가하는 보험·금융 산업 연구기관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음.

■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서 연구 주제를 소비자로 선정하였고, 소비자 관점에서 보험산업을 연구해왔음.

- 소비자 관점에서 보험산업을 재조명하는 과정에서 보험업계와 의견 차이도 있었음.
  - 보험연구원이 기존 보험업계의 관행 개선에 대한 의견을 많이 개진하였고, 보험업계와 의견 차이를 보였던 것이 사실임.
- 그러나 이러한 의견 차이는 보험산업을 바라보는 보험연구원과 보험업계의 장·단기 관점의 차이라고 판단하고 있음.
  - 보험업계는 단기적인 이익에 더 큰 관심이 있는 반면, 보험연구원은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험산업의 지속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임.
  -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험연구원의 생각과 의견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■ 보험은 타금융업권에 비해 복잡하고 다기화되어 있어. 타금융업권 연구원에 비해 더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나, 현재, 인력과 예산에서 열세인 상황이라 이에 대한 보험업계의 도움이 필요함.

나. 보험연구원에 대한 제언

■ 학계, 업계, 유관기관, 및 정책·감독당국이 보험연구원에 바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① 시의성과 선제성을 확보한 연구, ② 회원사의 경영전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, ③ 연구원의 객관성과 중립성 유지 등임.

- 이외에도 정책·감독당국은 보험연구원이 보험산업을 대표하는 연구원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보험산업에 대한 연구가 보험연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.

1) 연구과제의 시의성과 선제성 확보

■ 보험업계의 현안에 대해 시의성있고 선제적으로 이슈를 선점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.

■ 이를 위해서는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업계와 소통하는 과정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- 과제 발굴 시에도 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연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.
- 과제 선정 단계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현재의 프로세스는 일회성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업계와 정기적인 소통이 필요해 보임.

■ 보험업계의 현안과 관련하여 보험연구원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선제적으로, 주체적으로 수행해주었으면 함.

- 첫째, 저금리 장기화에 대비하여 이를 극복하거나 실패한 선진국의 사례 분석과 고령화와 관련하여 선진국에서 상품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 지에 대한 사례 발굴이 필요함.
- 둘째, 보험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보험업과 관련된 법·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
  - 보험산업의 창의적인 발전을 위해 자본시장통합법처럼 보험업법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전면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큰 틀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.
  - 이를 위해서, 그리고 보험산업이 타금융업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함.
- 셋째, 보험연구원은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보험산업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, 선진복지체계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.
  - 공사연금 조화를 추진할 수 있는 청사진, 장기적 전략 하에서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임.

2) 경영전략에 현실적 도움이 되는 연구

■ 회원사의 경영전략에 현실적 도움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해외 보험산업의 경험에 대한 사례분석과 시사점 도출이 필요

- 현안에 대한 이론적·계량적 분석보다는 선진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업계가 참고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되었으면 함.
- 보험회사가 연구원의 보고서를 활용하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정치한 연구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함.
  - 경영효율화를 모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, 예를 들면 사업비율, 해약률, 부채비율, 합산비율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례분석이나 방향 제시가 필요
- 보험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보다는 보험회사의 경영전략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
  - 계리, 상품 디자인, 판매 등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는 보험리스크 관련 연구들과 연계되는데, 이러한 기능은 연구원보다는 보험개발원에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- 보험회사 CEO들이 주로 읽는 연구 결과의 요약과 시사점을 더욱 충실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음.

■ 경영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타금융업권에 대한 연구도 지속되어야 함.

- 금융업권간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어 은행·증권·자산운용업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수립에 타금융업권과의 경쟁이 중요해 짐.
- 업계와 학계 일부에서 금융 전반에 걸친 연구는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, 보험과 금융 모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.

3) 객관성과 중립성 유지

■ 연구결과의 가치와 보험연구원의 권위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.

- 단기적인 실적이나 이익에 집착해서 보험업계가 보험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대해 불평하고 보험연구원의 정체성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자세임.
- 이러한 업계의 불평에 대해 보험연구원이 부화뇌동하는 것 역시 중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수 있음.

■ 보험연구원이 연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통해 보험업계와 정책·감독당국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함.

저자약력

윤 성 훈

The University of Michigan 경제학 박사
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
(동향분석실 실장)
(E-mail : shyun@kiri.or.kr)

전 용 식

Iow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
보험연구원 연구위원
(동향분석실 부실장)
(E-mail : yongsik.jeon@kiri.or.kr)

전 성 주

Boston University 경제학 박사
보험연구원 연구위원
(E-mail : sjchun@kiri.or.kr)

채 원 영

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 석사
보험연구원 연구원
(E-mail : wychae@kiri.or.kr)

CEO Report 2012-03

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

발 행 일	2012년 12월
발 행 인	김 대 식
발 행 처	보 험 연 구 원
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-4
인 쇄 소	경성문화사
	대표전화 786 - 2999

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 (☏3775-9016)로 연락하여 주십시오.